

'용수·전력·교통' 최적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뜬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첨단산업 거점 도약 기대 기업 유치 넘어 정주환경·생활 인프라 투자 결정 좌우 "공장보다 인재"... 도시 경쟁력이 지역 미래 성장 핵심



▶1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구체화하면서 전남광주특화특별시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산업이 결합된 대규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경우 지역 산업구조는 물론 고용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기업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첨단산업 시대에는 공장보다 사람이, 생산시설보다 정주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분석이다.

△ 광주특별시, 첨단산업 중심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지역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시설은 물론 연구개발(R&D)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집중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첨단산업의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보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장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인 기업과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어렵고, 교육·문화·의료·주

거 등 정주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산업 경쟁력도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투자계획 발표를 통해 대규모 투자 구상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신규 반도체 팹(Fab)과 해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해 총 42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으며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산업이 집중될 경우 전남광주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설계(팹리스),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들어서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투자가 제조업 중심이었던 전남광주의 산업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수 인재와 가족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산업단지외로 부족 지역 경제계는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방으



이재명 대령이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MOU체결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로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집중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연구개발 인력과 반도체 설계 전문가, 엔지니어 등 고급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시설 이전과 함께 연구개발 조직까지 함께 배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도 교육과 의료, 문화, 주거, 교통 등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생산

시설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유입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도시의 생활환경과 문화 인프라가 투자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산업단지외로 AI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키며 성장해 왔다. 다만 신주과대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데 이어 주거단지와 교육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대표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구마모토 역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지에 맞춰 주거단지와 교통망,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상업·문화시설을 동시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생산

시설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유입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도시의 생활환경과 문화 인프라가 투자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산업단지외로 AI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키며 성장해 왔다. 다만 신주과대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데 이어 주거단지와 교육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대표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구마모토 역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지에 맞춰 주거단지와 교통망,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상업·문화시설을 동시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생산

시설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유입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도시의 생활환경과 문화 인프라가 투자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세계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산업단지외로 AI 인프라를 함께 발전시키며 성장해 왔다. 다만 신주과대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데 이어 주거단지와 교육시설,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며 대표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구마모토 역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지에 맞춰 주거단지와 교통망,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반도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상업·문화시설을 동시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생산

금호타이어, 넷플릭스와 '여름 캠페인'

대표 캐릭터 도로·로로, '솔로지옥' 출연자로 깜짝 변신

금호타이어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와 함께한 브랜드 캠페인 '금호타이어 넷가이드'의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넷가이드'는 콘텐츠 시작 전 상영되는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이 작품을 안전하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청 에티켓 캠페인이다. 양사는 지난 3월 공개한 '오징어 게임' 콘셉트의 1편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여름 시즌을 겨냥한 두 번째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영상은 '시청 전 안내'와 '시청 후 안내' 등 총 2편으로



구성됐다. 금호타이어 대표 캐릭터 '도로'와 '로로'가 무더위를 날릴 '솔로지옥' 출연자로 깜짝 변신해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넷플릭스와 기업 브랜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연간 3단계에 걸쳐 '넷가이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를 확대해 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97만 고객이 총 714억원의 전

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수혜자 1인당 연평균 약 18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주거용 주택 고객과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어 폭염으로 증가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기아, 'The 2027 타스만·오픈베드' 계약 개시

브랜드 첫 정통 픽업 연식변경... 고객 선호 사양 추가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타스만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타스만'과 '더 기아 타스만 오픈베드'의 계약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는 2027 타스만에 다양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한 '베스트 셀렉션'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규 트림 베스트 셀렉션은 기존 '어드벤처' 트림을 기반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고객 만족도가 높은 최신 편의 사양과 전장식 4WD 시스템 등이 기본 적용됐다. 또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클리어 화이트 또는 텐 메이지 외장 색상에 한해 선택 사양으로 휠리지 클레딩 색상을 외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차별

화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기아는 더 많은 고객이 타스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27 타스만의 엔트리 트림 '다이내믹'의 사양 최적화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어드벤처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사이드 스텝, 베드커버 패키지, 스포츠바 패키지 등이 수석 엔지니어링을 다이내믹 트림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의 사용 목적에 맞게 타스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타스만 오픈베드는 3년 개폐가 가능한 적재함과 최대 적재 중량 1t을 확보해 뛰어난 활용성을 갖춘 특화 모델이다. 기아는 타스만 오픈베드에 기술된

2.5 터보 엔진을 적용해 여유로운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험로 주행 능력을 확보했다. 기아는 2027 타스만 출시를 기념해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 있다(Load, My Road)'를 주제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SNS 캠페인과 연계해 고객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타스만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아는 타스만 전용 애프터마켓 오프종류 지속적으로 늘려 일상 주행부터 업무와 여가에 차량을 적극 활용하는 고객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며, 한국의 기아 오토클루와 연계한 장차 서비스도 시행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커스터마이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확대" 삼성전자, '세이프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세이프(SAFE·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과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시대에 SAFE를 중심으로 고객·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세이프 포럼 행사에는 고객·파트너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자 설계자동화(EDA), 설계자산(IP), 디자인 솔루션(DSP), 가상설계(VDP), 첨단 패키징(MDI) 분야 21개 파트너사가 부스를 마련해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 AI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과 EDA 기업 Siemens EDA 등 주요 파트너사가 연사로 참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한 AI 반도체 개발 사례와 2.5D/3D 칩 설계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태계 협력과 함께 AI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공정·설계 혁신 전략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DTCO(반도체 설계와 공정 기술을 최적화해 반도체 칩의 성능을 극대화 하는 기술)를 비롯해 차세대 2나노 공정 기술과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공정 혁신 방향을 공개하며 고객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